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단독 1위 질주



광주도시공사 원선필이 5일 광주 빙고올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2라운드 경남개발공사와 경기에서 슛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경남개발 22-20 꺾고 7승 1무

강경민 8골·김수민 5골 맹활약

손민지 골키퍼 17개 슛 9개 막아

올시즌 우승 후보로 꼽히는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팀이 홈에서 단독 1위에 올라섰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는 5일 광주 빙고올체육관에서 열린 핸드볼 코리아 리그 여자부 경남개발공사와 경기에서 22-20(12-9, 10-11)으로 승리했다.

시즌 7승1무를 기록한 광주도시공사는 승점 15를 기록, 공동 1위였던 삼척시청을 밀어내고 단독 1위에 복귀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까지 8경기 무패 기록을 이어갔다.

에이스 강경민이 8골(4 어시스트)을 터트려 승리의 물꼬를 텃고 김수민(5골), 김지현(3골·2 어시스트)이 뒤를 받쳤다.

광주도시공사가 올시즌 드래프트에서 영입한 김수민(1라운드 5순위)은 라이트 윙으로서 합격점을 받았다. 이날 경기 MVP로 선정된 그는 5골 가운데 4골을 윙사이드에서 뽑아냈다.

청소년대표와 주니어대표 출신인 그는 2017년 청소년대표 시절 제7회 아시아 여자청소년선수권

과 제99회 전국체전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끈 주역이다. 또 2019년 주니어대표로 제15회 아시아 여자주니어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광주도시공사의 2점차 승리에는 뒷문 단속의 효과가 컸다.

노장 골키퍼 손민지는 17개 슛 가운데 9골을 막아내 방어율 52.9%를 기록했고 박조은도 21개 슛 가운데 10개를 막아냈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반 10-9 한 점차로 쫓겼으나 손민지가 원선필의 6m 슛으로 한 점을 추가해 다시 점수차를 벌렸다. 이후 강경민이 잇따라 골을 터트려 12-9로 달아났다. 손민지는 경남개발공사 유헤정과 김다혜의 슛을 잇따라 막아내 추격을 무력화 한 뒤 전반전을 12-9로 마쳤다.

후반 14분 18-13으로 광주도시공사의 낙승이 예상됐으나 경남의 추격이 거셌다.

경남은 김소라, 김다혜의 4골 등을 묶어 19-17까지 간격을 좁혔다.

결정적인 승부처였던 18-17에서 강경민과 김지현이 2골을 묶어 달아나자 경남은 20-19 한점차까지 따라붙었다.

광주도시공사는 종료 직전인 29분35초에 21-20까지 쫓겼으나 강경민이 7m골을 터트려 승부를 마무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쇼트트랙 최민정 쇼트트랙 월드컵 1500m 금메달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이 올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개인전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민정은 4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2022-2023시즌 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 여자 1500m 1차 레이스 결승에서 2분26초536의 기록으로 미국 크리스틴 산토스-그리즈월드(2분26초570), 캐나다 코트니 사로(2분26초591)를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함께 출전한 김건희(단국대)는 5위(2분26초954)를 기록했다.

초반 중위권에 자리를 잡고 기회를 엿보던 최민정은 4바퀴를 남기고 아웃코스에서 질주를 시작했고, 2바퀴를 남기고 선두로 올라선 뒤 여유롭게 레이스를 이끌며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제31회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동계유니버시아드)에서 유일하게 4관왕을 달성한 최민정은 이번 대회에서도 패조의 컨디션론을 자랑하고 있다.

올 시즌 1~3차 월드컵 개인전을 치르며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그는 기세를 이어 마침내 금메달도 거머쥐었다.

최민정은 같은 날 열린 혼성 2000m 계주 결승에선 홍경환(고양시청)-김길리(서현고)-이준서(한국체대)와 은메달을 합작했다.

4개 팀 중 3위로 경기를 시작한 대표팀은 6바퀴를 남기고 최민정이 인코스로 파고들어 선두로 올라섰고, 옆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서 이준서가 다시 1위를 꿰찼다.

그러나 홍경환이 주자로 나선 경기 막바지 이탈리아가 역전 우승(2분39초388)에 성공하고, 한국은 2분39초514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이날 열린 5개 종목 결승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휩쓸었다.

남자 1500m 1차 레이스 결승에선 이준서(2분28초291)와 임용진(고양시청·2분28초773)이 각각 금메달, 동메달을 획득했다.

1차, 4차 대회에서 3관왕에 오르는 등 올 시즌 월드컵에서 금빛 질주를 펼치고 있는 박지원(서울시청)은 남자 1000m 결승에서 1분23초231의 기록으로 또 한 번 정상에 올랐다.

함께 댄 김태성(단국대)은 일본 미야타 쇼고와 충돌하며 넘어져 4위(2분00초260)에 그쳤다.

여자 대표팀에서 1000m 결승에 홀로 진출한 심석희(서울시청)는 4위(1분31초213)로 아쉽게 메달을 놓쳤다.

한국 대표팀은 5일 남녀 500m, 1500m 2차 레이스, 여자 3000m 계주에서 추가 메달을 노린다.

/연합뉴스

손승락 KIA 퓨처스 감독 “데이터 야구로 경쟁력 키우겠다”

스피드·파워 등 13개 항목

선수 별로 데이터화 작업

KIA 타이거즈의 즐거운 상상은 현실이 된다. KIA는 탄탄한 팀을 만들기 위해 올 시즌 '변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일단 KIA의 약점으로 언급되던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맞춰 퓨처스 스프링캠프는 시작부터 달랐다. 퓨처스 선수단은 지난 1일 테스트 데이로 캠프를 열었다. 야구 선수들에게 중요한 스피드, 민첩성, 유연성, 파워, 근력 등에 관련한 13개 항목을 세밀하게 테스트하고 이를 선수 별로 데이터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는 선수들의 전력 극대화 및 부상 방지에 활용될 예정이다.

KIA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퓨처스 전력을 강화, KIA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손승락 퓨처스 감독이 있다.

KIA는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손승락 코디네이터를 퓨처스 감독으로 선임하며 육성을 위한 새로운 판을 짜다. 마무리캠프에서 변화의 틀을 만든 손 감독은 스프링캠프를 통해 본격적인 팀 체질 개선에 나섰다.

변화의 중심에는 코치진이 있다. 야구는 선수가 하지만 그 선수들이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것은 코치진이라는 게 손 감독의 생각이다.

손 감독은 “지도자가 즐거워야 선수도 즐겁다. 선수들이 코칭스태프에게 잘 보여서 게임을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면 변화가 다시 도출이 나오게 된다. 선수들 문화가 코치, 선수 사이에도 있다. 코치는 전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부도 많이 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질문을 많이 받는 코치가 가장 인기 있는 코치다. 코치들이 공부하고, 스킵을 해야 한다. 마무



KIA 타이거즈 손승락 퓨처스 감독이 함평 헬린저 스피드 휴게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리 캠프는 코칭스태프가 달라지는 훈련이었다”고 말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훈련 준비를 코치들이 한다는 점이다. 선수들은 오로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코칭스태프가 먼저 움직이고, 마지막까지 경기장을 지킨다.

변화의 가장 핵심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다. 손 감독은 LA 다저스에서 코치 연수를 하면서 선진 시스템을 배워왔다. 그는 KIA에 맞는 전체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 비시즌 고민에 고민을 이어왔다.

손 감독은 “합숙을 하면서 코칭스태프 미팅을 하고, 중앙대 권용웅 교수를 모시고 준비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다저스와 메일을 주고 받고, 자료 논문 등을 통해서 어떻게, 또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각 파트 별로 공부를 했다.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이야기 했다.

새로운 시스템을 시도하는 KIA는 ‘5일 훈련 1일 휴식’의 일정으로 퓨처스 스프링캠프를 소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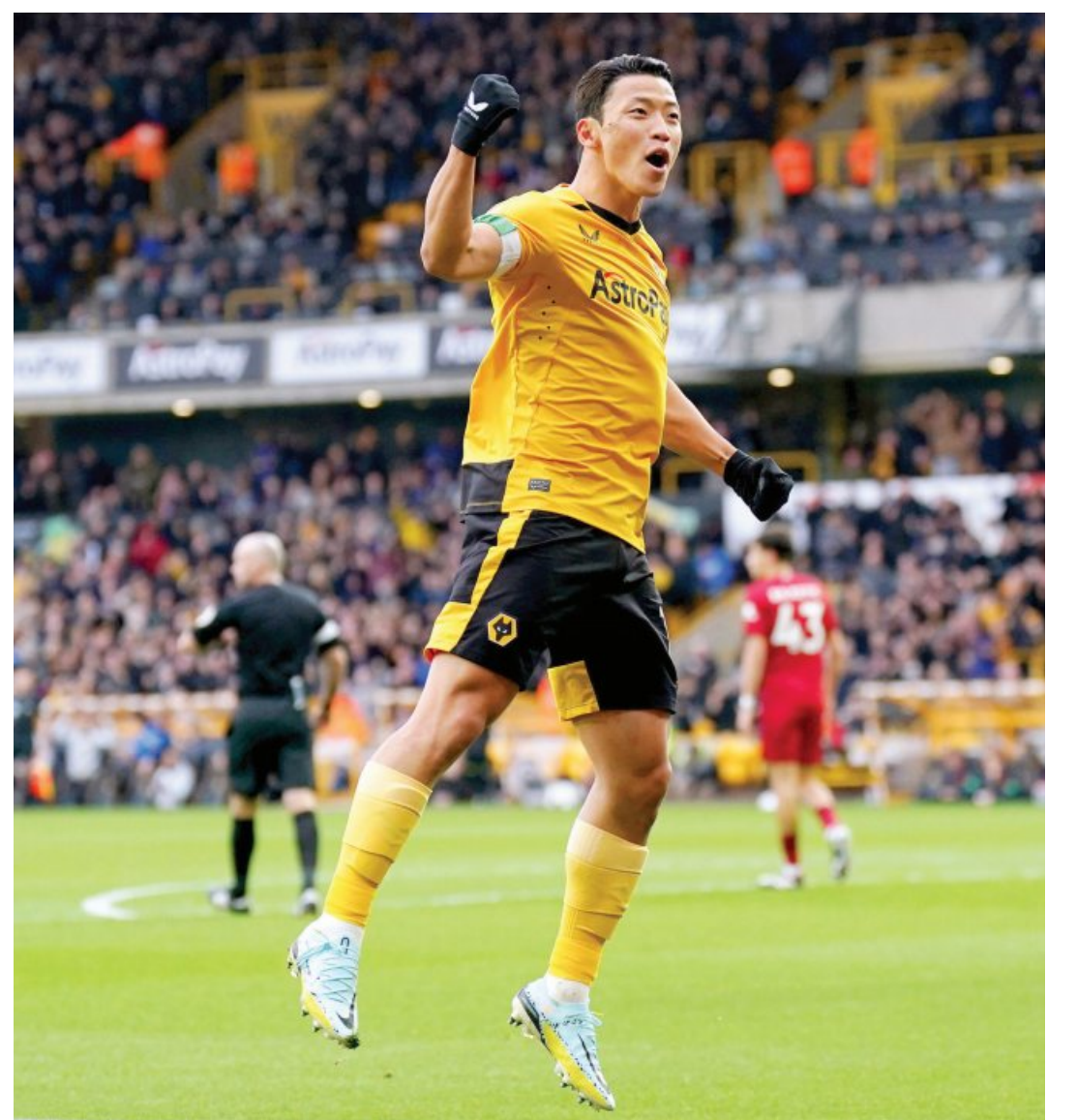
손 감독은 “선수들보다는 코칭스태프에게 힘든 시스템이다. 회의를 통해서 코치들이 생각하는 야구를 마음대로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선수들은 5일 훈련을 하면서 생각보다 힘들지 않을 것이다”며 “각자 개인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주도적으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선수들이 자신에 맞는 시스템에 따라 훈련을 할 수 있게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손 감독은 “프로는 결과”라고 말한다.

그는 “선수들에게 따로 주문한 것은 없다. 선수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방향을 설정해주는 게 내 역할이다. 하지만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 있다. 잘해야 된다. 다른 선수보다 잘해야 1군으로 갈 수 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선수가 예뻐 보이지만 프로는 실력이다”고 실력을 언급했다.

또 “KIA는 해태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명문 구단이다. 명문 구단에 맞는 시스템을 꼭 만들고 싶다.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은 ‘공정’이다. 거기에 생각과 상상이다. 생각한 대로 될 것이다. 선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선수가 될 것이다”며 “새로운 시도에 대한 부담은 없다. 될 수 있을 것이다. 만들어질 것이다.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KIA에 좋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야구장에 오시면 선수들이 많이 웃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퓨처스 경기에 많이 오셔서 보고 느끼고 가시면 좋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황희찬, 리버풀전 자책골 유도 황희찬이 5일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시즌 EPL 22라운드 리버풀과 홈 경기에서 자책골을 유도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